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충분한 대피시간 확보 및 현장 사각지대 최소화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더 빠르고 촘촘한 홍수예보를 통해 충분한 대피시간 확보
- 내비게이션 안내, 침수우려지역 확인 등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정보 제공
- 하천·하수도 등 취약지역 점검·관리, 선제적 댐 방류 등 홍수대비 물그릇 확보
- 국가하천 폐쇄회로텔레비전 활용, 지자체 협업체계 강화 등 현장 중심 역량 확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집중호우에도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①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

첫째,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홍수 예측을 자동화하고 예보관 판단을 지원함에 따라, 더 많은 지점에 대한 예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예보지점을 그간 대하천 중심 75개소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홍수 발생 전에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는 예보 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수위관측소(673개소)에서 하천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모니터링)하여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한다.

하천의 수위 예측과 함께, 도시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확대한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홍수로 인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를 높인다.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하천범람지도는 2022년 말에 제작 완료하였으며, 하수관로 역류 등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도시침수지도는 침수 우려지역에 대해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비상상황시 대피소 및 대피경로를 마련하여 도시침수에 대비한다.

* ('23.12) 1,135개 읍·면·동 → ('24.12) 1,654개 읍·면·동 제작 예정

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이전까지는 홍수정보 알림 문자(CBS)를 받아도 운전 중에는 어느 곳에 발령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차량 운전자가 홍수정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을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줌으로써 저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 운전을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홍수주의보·홍수경보 알림 문자(CBS)는 개인별 핸드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하여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하여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관계기관에는 빈틈없이 홍수예보 등 위험 상황을 알린다. 기존에는 팩스(FAX), 문자(SMS)로만 전파했다면,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과 재난안전통신망** 등도 추가하고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홍수 위험상황을 전달한다.

* Voice Message System :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 자동 전파, 수신 확인 후 통화종료

** 동일 지역 내 지자체, 소방, 경찰 등 홍수대응 기관에 홍수상황 일시 전파

③ 하천·하수도 등 취약지역 사전 대비

셋째, ‘하천·하수도 등 취약지역 사전 대비’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제방 등 하천시설과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에 대해 전문기관(하천협회)과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점검을 4월에 완료하였으며, 홍수기(6.21~9.20일) 전까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한다.

하천공사 현장을 포함하여 취약한 구간은 전문기관과 합동 조사 후 홍수취약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집중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하천 합류부와 협착부 등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은 수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 등을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완료한다.

지자체가 홍수기 전까지 하수관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점검·청소하도록 협조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한다. 또한, 지자체가 침수 위험 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된 시설은 집중 점검하도록 관리한다.

④ 선제적 댐 방류 등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넷째, ‘선제적 댐 방류 등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집중호우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다목적댐(20개)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61.4억m³)한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간 협업하여 발전용 댐(7개소, 한국수력원자력)과 농업용 댐(36개소,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도 사전 방류 등 홍수에 대비한다. 특히, 작년에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작년보다 3m 하향하여 운영하는 등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또한, 임진강 및 북한강 유역 등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위성 직수신 안테나 설치로 위성영상을 통한 관측(모니터링)을 고도화하여 북측 댐의 예고 없는 방류 등에 대비한다.

⑤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

다섯째,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작년 말까지 국가하천 전구간(3,602km)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8천 여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하여 현장상황을 적기에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함으로써 현장대응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도 해당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하여 대응능력을 높인다.

홍수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홍수 예보 및 실시간 하천수위 등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관측(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

또한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환경부는 지자체와 더 많은 소통과 훈련 등을 통해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5월 첫째주에는 올해 처음으로 홍수안전주간을 운영하여 정책토론회, 유역별 모의훈련, 지자체 합동 연수회(워크숍) 등 기관 간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했으며, 앞으로 홍수대응 시에도 기관 간 적극 협력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하천공사 현장 점검 및 조치 등을 신속히 완료하여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라며, “올 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주요내용.
 2. 전년 대비 신규도입 및 강화된 추진과제.
 3.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주요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총괄>	물관리정책실 물재해대응과	책임자	과장	이상훈 (044-201-7651)
		담당자	사무관	김태윤 (044-201-7652)
<협조>	물관리정책실 하천계획과	책임자	과장	신태상 (044-201-7701)
		담당자	사무관	조성전 (044-201-7702)
<협조>	물관리정책실 하천안전팀	책임자	과장	안상혁 (044-201-7531)
		담당자	사무관	강상진 (044-201-7537)
<협조>	물관리정책실 수자원개발과	책임자	과장	서해엽 (044-201-7682)
		담당자	사무관	박준형 (044-201-7689)
<협조>	물관리정책실 생활하수과	책임자	과장	윤태근 (044-201-7020)
		담당자	사무관	성연주 (044-201-7025)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국가 홍수안전 관리체제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1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



**시 홍수예보
本格 운영**

홍수예보 지정 75개소
⇒ 223개소 대폭 확대



**하천 수위 모니터링 및
도시침수 예보 확대**

서울(광릉강), 포항(냉천),
[도립천] ⇒ 창원(창원천) 지역 확대 운영



**홍수위험지도 활용한
도시침수대응**

하천범람지도 제작완료, 도시침수지도
침수우려지역 우선 제작(1,135개 읍·면·동)

2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 정보 제공



**내비게이션
홍수경보 안내**
[‘24. 7월부터 시행]



**주변 침수 우려 지역 정보 등
안전 안내 문자 개선**
본인 위치 확인,
주변 침수 우려 지역 정보 제공



**지자체 부단체장
직접 통보**

기존 VMS, 재난안전 통신망
FAX, 문자 활용하여 직접 전달

3
하천·하수도 등
취약지역
사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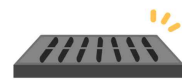
**하천
정비 사업 확대**

정비 예산 대폭 증가
[‘23년 4,510억 ⇒ ‘24년 6,627억]



**전문가 합동점검,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

취약지구 위험 수위 도달 예측 시
환경청·지자체 등 신속 대응



**하수도 빗물받이
점검 및 홍보**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국민실천 캠페인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24.5.~10.)

4
선제적
댐 방류 등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다목적댐 홍수기 전
홍수조절용량 확보**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61.4억㎥) 확보



**발전용 댐 및 농업용 댐
운영 관리 강화**

발전용 댐 7개소, 농업용 댐 36개소
사전 방류 등을 통한 홍수에 대비



**점경 지역 댐
모니터링 및 운영 개선**

북측댐 모니터링 강화, 군남댐·한탄강댐
연계 운영을 통한 홍수량 저감

5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



**CCTV를 활용한
실시간 하천 현장 감시**

지자체와 함께 국가하천의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운영(‘24.7.~)



**물재해종합상황실 등
비상 대응체계 구축**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



**지자체 소통·교육 등
현장대응역량 확보**

간담회, 모의훈련, 교육 등을 통해
기관 간 협조체계 및 현장 행동조치 강화

I 추진 배경

- **(집중호우 일상화)** '23.7월 중부지방 집중호우(500년 빈도), '22.8월 서울(동작) 시간당 141mm 강수, '20년 최장 장마 54일(평년 30일) 기록
※ '23년 미호강·논산천 제방 유실 / '22년 서울 침수, 포항 냉천 범람 / '20년 섬진강 범람 등
- **(치수 패러다임 전환)** 중장기적 관점의 치수대책('23.12 수립)을 기반으로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 및 홍수대응체계 확립 필요

II 2024년 여름철 기상 전망

- 강수량은 평년('91~'20년, 622.7~790.5mm)과 비슷하거나 많고, 지역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III 주요 추진대책

① 디지털플랫폼 기반 과학적 홍수예보

- **(홍수예보)** 첨단기술을 적용한 AI예보 전국 시행과 아울러 실시간 모니터링 등도 강화하여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골든타임 확대
 - **(AI 예보)** AI기술을 도입하여 홍수발생 전에 예측하여 발령하는 홍수예보 지점을 기존 75개에서 223개로 확대('24.5~)
 - **(실시간 모니터링)** 하천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하여 수위정보를 제공하는 지점을 673개(국가 310, 지방 363) 운영
 - **(도시침수 예보)** 작년 서울(도림천, '23.5~)에서 실시, 이를 광주(황룡강)·포항(냉천)·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 운영('24.5~)
- **(도시침수대응)** 하천범람지도는 제작 완료(국가·지방하천)했고, 도시침수지도는 침수우려지역을 위주로 우선 제작(1,135개 읍·면·동)
 - * 연말까지 총 1,654개 읍·면·동 제작 예정
 -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침수우려지역을 확인 가능하며, 지자체는 홍수 시 대피소 및 대피경로 마련

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 **(내비게이션 활용)**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환경부 관리 37개 댐) 방류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 안내로 위험지역 안전운전 유도('24.7~)

※ (예시) 이 지역은 홍수경보 발령지역입니다. 지하차도, 저지대 등 진입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안내문자)** 홍수주의보·홍수경보 발령시 안내 문자에 핸드폰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본인 위치 확인 및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 제공('24.5~)

- **(관계기관 전달)** 기존 FAX, SMS문자에서 VMS*,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추가하여 지자체(부단체장) 등에 직접 전달('24.5~)

* (Voice Message System)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자동 전파, 수신 확인 후 통화종료

** 동일 지역 내 지자체, 소방, 경찰 등 홍수대응 기관에 홍수상황 일시 전파

③ 하천·하수도 등 취약지역 사전 대비

- **(하천 정비보강)** 정비예산 대폭 증가('23년 4,510억 → '24년 6,627억)에 따라 신규 제방정비 착공 확대('23년 49km, 10개 지구 → '24년 150km, 30개 지구)

- 하천시설(제방 등), 하천공사(점용공사 포함) 현장 등 전문기관(하천협회)과 함께 일제점검(~'24.4) 후 홍수기 전까지 조치

- 국가하천 정비사업 중 준설이 포함된 구간은 합류부와 협착부 등 퇴적토 준설과 수목 제거 등 홍수기 전 최대한 조치

- **(홍수취약지구)** 금년 국가하천으로 승격 예정인 하천(10개소)을 포함하여 취약지구 지정 및 홍수기 전문기관(하천협회) 합동 현장점검('24.5~)

- 취약지구 위험수위 도달 예측시 환경청·지자체에 안내문자 제공,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를 통한 신속 대응

- **(하수도 관리)** 홍수기 전 지자체가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 점검·청소, 위험지역에 설치된 맨홀 추락방지시설 점검토록 관리('24.5~10)

※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국민실천 캠페인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24.5~10)

④ 선제적 댐 방류 등 홍수대비 물그릇 확보

- **(홍수조절용량 확보)** 다목적댐(20개)은 홍수기 전까지 홍수기 댐 운영 기준수위를 목표로 집중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61.4억 m^3) 확보
 - 작년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작년보다 3m 하향 운영
- **(접경지역 관리)** 위성영상을 통한 임진강·북한강 등 북측댐 모니터링 강화, 군남댐-한탄강댐 연계운행을 통한 홍수량 저감

⑤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

- **(CCTV 활용)** 국가하천 CCTV*를 활용하여 사전에 현장상황을 확인 및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상황에 따라 현장 순찰 실시
 - * 0.5~1km 간격으로 CCTV 8천여대 설치('23.12), 환경청·홍통이 함께 제어·관리('24.5~)
- 지자체도 국가하천의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운영(ID 발급 등, '24.7~)
- **(지자체 대응역량 강화)** 지자체와 간담회, 모의훈련, 교육 등('24.3~5)을 통해 지자체의 현장 행동조치 강화
 - ※ [환경부-지자체 간담회] : 홍수대응 관련(3.20, 4.29), 하수도관리(4.17)
 - [워크숍] 하천관리 워크숍(3.28~29), 홍수안전 정책포럼(4.30),
유역별 설명회(3.20~28), 유역별 워크숍(5월 1, 2주간)
 - [모의훈련] 유역별 유관기관 합동훈련('24.4~5)
- ※ **(홍수안전주간)** 워크숍·훈련·포럼 등을 통한 홍수대응기관 간 협조 체계 강화, 안전주간 홍보로 대국민 홍수 안전의식 제고(4.29~5.3)

붙임 2

전년 대비 신규도입 및 강화된 추진과제

분야	추진과제	2023년 여름철	2024년 여름철	비고
홍수 예보	AI 홍수예보	인력 기반 예보	AI 활용 + 홍수예보관 검증 후 예보발령	신규
	촘촘한 예보	대하천 중심 75개소	지류·지천 포함 223개소	강화
	도시침수예보	서울(도림천) 시범사업	광주, 포항, 창원까지 확대	강화
	홍수정보 제공	631개소	673개소	강화
정보 전달	내비게이션	-	내비게이션으로 홍수경보 전달	신규
	안전안내문자	하천수위 정보만 제공	본인 위치 확인,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 제공	강화
	관계기관 전달	FAX, 문자	VMS,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지자체 부단체장 직접 전달	강화
현장 중심 대응	홍수취약지구	담당자에 의존한 지구 지정	대상 확대 전문기관 활용	강화
	CCTV 활용	직접 현장 순찰	CCTV로 사전에 현장상황 확인 후 조치	신규
	지자체 행동조치 독려	유역별로 제한적으로 지자체 소통·협력	지자체 간담회·워크숍 등을 통해 환경부 추진과제 전파, 교육, 협조체계 구축	강화

<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및 정보제공 >

(질문 1)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는 무엇인가요?

- 홍수예보의 2가지 단계로, 하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홍수로 인해 인명·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사전에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여 발령함으로써 위험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 하천이 최대로 물을 소통시킬 수 있는 용량을 계획홍수량이라고 합니다. 계획홍수량의 50%에 해당하는 수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될 때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고, 하천수위가 더 높아져서 계획홍수량의 70% 수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될 때 “홍수경보”가 발령됩니다.

(질문 2) 인공지능 홍수예보가 도입됨으로써 무엇이 더 개선되었나요?

- 올해부터는 홍수예보 발령지점이 3배 가량 확대(75→223개)되어, 홍수예보관이 모든 늘어난 지점의 예보를 적시에 발령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통해 전체 223개 홍수예보 지점을 10분 간격으로 자동 분석하기 때문에, 예보관이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지원하여 기존보다 빠르고 촘촘한 홍수 상황 예측이 가능합니다.

(질문 3) 홍수주의보·홍수경보 알림 문자를 받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 올해부터는 알림 문자 링크를 통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침수우려지역 지도 정보가 함께 제공됩니다. 확인 결과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있다면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 특히, 하천수위가 높아져서 홍수주의보 및 홍수경보 수위까지 올라간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관할 지자체의 재난방송 등 안내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됩니다.

(질문 4) 현재 하천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하천 수위관측소에서 관측한 실시간 하천수위 정보와 홍수예보 발령 상황은 4대강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리미 앱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한강 : www.hrfco.go.kr, 낙동강 : www.nakdongriver.go.kr,
영산강 : www.yeongsanriver.go.kr, 금강 : www.geumriver.go.kr

< 내비게이션 >

(질문 1)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어떻게 홍수경보를 받나요?

- 운전 중 “홍수경보” 발령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약 1.5km 내 진입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화면에 “홍수경보” 표시와 함께 “지하차도, 저지대 진입시 주의” 하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질문 2) 내비게이션 종류에 관계 없이 홍수경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스마트폰 내비게이션(티맵, 카카오, 네이버)과 차량용 내비게이션 (현대자동차, 아틀란, 아이나비) 등 대부분의 내비게이션에서 7월부터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홍수경보 발령시 내비게이션에서 우회도로를 알려주나요?

-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역에 진입했을 때 침수 위험이 있는 도로나 지하차도 운행시 주의해야 함을 안내하는 것으로, 별도로 우회도로를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 홍수위험지도 〉

(질문 1) 홍수위험지도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홍수위험지도는 국민들과 지자체에서 하천 범람 또는 도시 침수 피해 우려지역을 미리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홍수위험지도는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로 이뤄져 있습니다.
-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홍수위험지도'를 검색하여 홈페이지(floodmap.go.kr)에 들어가면 관심 지역의 예상침수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홍수위험지도는 실제 침수된 지역을 나타낸 것인가요?

- 홍수위험지도(하천범람지도, 도시침수지도)는 실제로 침수된 지역을 나타낸 지도는 아닙니다.
- 하천범람지도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려 하천이 범람하거나 제방이 붕괴되는 등의 상황을 가정하여 만든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상 지도입니다.
- 도시침수지도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배수펌프 기능 고장이나 하수관로의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는 등의 상황을 가정하여 만든 도시침수로 인한 피해 예상 지도입니다.

〈 하수도 관련 〉

(질문 1) 주변 빗물받이에서 하수 악취가 나서 덮개 같은 것으로 덮어두어도 상관없나요?

- 도시에 내린 빗물은 빗물받이로 모인 후 지하 빗물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빠져나갑니다. 덮개를 덮어두면 빗물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해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덮개를 덮어두면 안되고, 빗물받이에서 악취가 나면 시청·군청에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질문 2) 빗물받이에 담배꽂초 등 쓰레기로 막혀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에 들어가서 안전 신고메뉴 및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또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safetyreport.go.kr)나 각 시청·군청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

(질문 1) 하천 변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 지자체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통해 하천수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침수 전에 하천 진입차단 등 순찰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들도 홍수알리미 앱을 통해 주요 수위관측소 주변 관측이 가능합니다.
- 국민들께서는 홍수예보 발령시에 관할 지자체의 재난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홍수 대비 다목적댐(20개소) 방류시 사전에 방류계획을 미리 알 수 있나요?

- 다목적댐별 상황에 맞춰 홍수기 전 목표 수위까지 강우예보와 댐 하류 하천상황을 고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류할 계획입니다.
- 수문 방류가 필요한 다목적댐은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에 수문방류 24시간 전에 수문방류를 사전 예고하고, 3시간 전에는 방류통보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여 조치시간 확보 등 하류 홍수피해를 예방합니다.